

‘호남 균열’ 심상찮다

과학벨트·새만금 등 대립 양상...정치권 소통 부재로 연대감 약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놓고 광주·전남과 전북이 각기 유치전에 나서면서 ‘호남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DJ) 이후, 호남을 아우르는 정치적 리더십 공백에 따른 소통 부재와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예전의 끈끈했던 ‘호남 연대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실제로 DJ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정권 교체에 이은 이후, 광주·전남과 전북의 민심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정부 사업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감정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우선, 전남의 J프로젝트와 전북의 새만금 사업 내용을 놓고 양 측은 지금까지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규모 골프장, 신재생 에너지기지 건설, 마린, 워터파크 조성 등 중복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과학벨트를 놓고도 광주시는 당초 전남과 전북을 포함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전북이 독자적으로 새만금 지역에 유치를 추진하면서 호남권의 유치 동력은 분산된 상황이다.

여기에 광주전남과 전북은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해서도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광주·전남은 영남 2곳(대경·동남권), 호남 1곳(호남권)으로 구성되는 광역경제권 계획에 대해 강력 반발한 반면, 새만금 사업이 포함된 전북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광주·전남과 전북의 미묘한 균열은 정치권의 소통 부재와 분열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DJ 이후, 호남을 전체적으로 아우

를 수 있는 정치적 리더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과거 지역 정치권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분열된 후폭풍의 영향으로 ‘호남 민심의 연대감’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소통 부재로 전북 민심의 저변에는 정치·경제적으로 ‘광주전남에 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는 반발 심리가 작용하고 있고 광주전남에서는 ‘전북이 변했다’는 섭섭함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광주·전남과 전북의 대립양상도 잦아지고 있다. 각종 현안 사업과 관련, 지역의 이익은 물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현실을 감안할 때 광주·전남과 전북은 전략적인 상생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정기적인 회동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자치단체는 활발한 교류 등으로 호남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가 전체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을 놓고 볼 때 호남은 아직까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상황”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은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통을 강화하고 상생 방안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zim@



열광의 카이로 무바라크 대통령의 전격 사퇴 소식이 전해진 12일(현지시각) 이집트 시민들이 '민주화의 성지'로 떠오른 카이로의 타흐리르광장에서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홀로서기 지수' 3년째 최하위...광주 재정상황 열악

자치단체의 재정 충실도를 평가하는 전남의 재정력 지수가 3년째 전국 15개(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재정력 지수도 6대 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에 따르면 전남(본정 기준)의 재정력 지수는 0.324로, 전국 15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력 지수는 지자체의 재정 충실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1보다 크면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남의 재정력 지수는 ▲2009년 0.193 ▲2010년 0.312 ▲2011년 0.324 등으로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재정 상황은 최악인 상황이다.

22개 시·군 별로는 신안의 재정력 지수(0.107)가 가장 낮았다. 신안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지자체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이 1971억8400만원인 반면, 수입액은 211억2200만원에 불과했다.

광양시는 재정력 지수(0.525)가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지난해(0.485)보다도 상승했다.

6대 도시간의 재정력 지수 비교에서도 광주시(본정 기준)의 재정력 지수는 0.569로 서울(1.02), 인천(0.

919), 울산(0.873), 부산(0.688), 대구(0.651)에 이어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의 재정력 지수는 지난해 0.594에서 0.569로 하락하는 등 재정 상황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재정력 지수=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와 함께 지자체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 지자체 연간 수입을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나눈 수치. 1보다 크면 자체 수입으로 지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광주·전남 2년간 재정력 지수

	2010	2011	2010	2011
광주본청	0.594	0.569	회춘	0.204
전남본청	0.312	0.324	장흥	0.129
목포	0.436	0.448	강진	0.117
여수	0.408	0.401	해남	0.149
순천	0.264	0.267	영암	0.27
나주	0.158	0.161	무안	0.198
광양	0.485	0.525	함평	0.143
담양	0.191	0.189	영광	0.196
곡성	0.127	0.123	곡성	0.144
구례	0.111	0.126	완도	0.128
고흥	0.117	0.122	진도	0.133
보성	0.129	0.134	신안	0.115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엔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사)로 임명된 변호사로서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주요 학력 및 경력
 - 서울 한양고(83학) 서울대학교 경제학과(86학번)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 공군법무관, 서울지검, 서울 서부지검, 대구지검 검사
 -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검사
 -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 광주고검 부장검사(승수후임명)

변호사 김형진 올림

- 업무개시: 2011년 2월 14일
- 개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자선동 342-29 신세계빌딩 2층
- 대표전화: 062)224-6112 팩스: 224-6115
- 개업소일: 2011년 3월 4일 17:00부터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사교육비 절감의 도심형 기숙학원!!

검정학원에 일산하이클래스를 추천합니다

후원: 광주시 교육감 인가 (사)한국교육발전협의회

+50점 상승 전략, 알 때까지 가르치는 무한 학습 관리!!

['도심형 기숙학원' 내입재수 종합반 모집]

개강: 1차 2월 14일(월) / 2차 3월 2일(수)

- 최고의 환경과 최강의 강사진
- 학과·학습·생활 ▶ 철저한 담임제
- 연·수·외 강사진 24시간 질의 응답 및 1:1 무한 관리
- 반별 정원 30명 내외(소수 정예)
- 매월 논술 모의고사 실시 및 참석 지도

※ 직접 방문 확인 하신 후 등록 하세요!

호남권 학생 특별 우대!!
 월 1,190,000원
 수강료 + 기숙사(1인1실) + 식비

1인1실 기숙사, 쾌적한 강의실, 인터넷 강의실, 자기 주도 학습실, 구내 식당, 세력 단련실

등록상담(일산본원) 031.9192.114 [광주] 062.434.8113 | 하이클래스 hiclassedu.co.kr 한국학원